

# 카운터포인트 팟캐스트 스크립트: MWC 바르셀로나 2022

[00:00:00] MJ: 안녕하세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팟캐스트입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도 한국, 유럽, 인도 등 여러 나라의 애널리스트들이 세계 최대의 모바일 행사인 MWC 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행사에 참석하고 오신 임수정 연구원님과 강경수 연구원님을 모시고 행사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00:00:23] Tom, SJ: 안녕하세요.

[00:00:25] MJ: 두 분은 MWC 처음 참석하셨나요?

[00:00:28] SJ: 네, 저는 이번이 첫 방문이었습니다.

[00:00:32] Tom: 저는 이번이 한 10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석을 한동안 못 하다가 오랜만에 갔는데 예전 분위기를 거의 회복한 것 같습니다.

[00:00:45] MJ: 네, 그럼 임연구원님은 처음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스페인은 어떠셨나요?

[00:00:51] SJ: 네 저는 스페인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럽이 첫 방문이라서 좀 기대를 하고 갔는데 기대한 만큼 일정 전에 어떤 가우디 건축물이라든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거리를 느끼면서 충분히 잘 즐기고 또 박람회도 잘 보고 온 것 같습니다.

[00:01:10] MJ: 아 네. 그러면 두 분께 여쭙보겠는데 MWC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나요?

[00: 01:19] Tom: 이번에 MWC 를 가게 되니까 중국 업체들의 성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화웨이가 아주 큰 부스를 차지하고 있어서 견재함을 과시했고 그리고 유럽 통신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시회였습니다.

통신사들이 또 5G 기술을 많이 선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한 것들을 공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또 SK 텔레콤의 부스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XR 전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한국에서 시작했던 서비스들을 보여줘서 관람객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00: 02:05] MJ: 네, 임연구원님은 어떠셨어요?

[00: 02:07] SJ: 저는 전체적으로 좀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어떤 참가 업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관람객들 모두 약간 좀 상기되고 업된 느낌 그래서 좀 MWC 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성공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00: 02:26] MJ: 그럼 이번 키워드를 한두 개 단어로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00: 02:33] SJ: 네, 제 경우에는 중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 월 CES 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참가가 매우 저조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엔 공식 일정 전날에 샤오미가 어떤 자사의 플래그십이죠. 미 13 스마트폰을 글로벌 런칭을, 대대적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 앞서 강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들이 통과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큰 규모의 부스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아너, 오포, 테크노 같은 중국 업체들이 또 폴더블폰을 많이 또 전시를 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했구요.

이외에도 모토로라에서 낸 롤러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롤러블 노트북 시제품 같은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이나 모바일이나 차이나 텔레콤 같은 중국 통신사들의 5G 성공 사례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솔루션 등이 선보여서 좀 전체적으로 중국 업체들의 입지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00: 03:53] Tom: 저는 폴더블을 꼽고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시작했던 이 폴더블폰의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서 이번 전시회에는 폴더블 폰을 들고 나오지 않은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업체가 새로운 폴더블, 삼성의 플립 같은 형태나 폴드 같은 형태 이 두 가지를 모두 선보이고 또 임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롤러블도 보여준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트렌드로는 저희가 봤을 때 eSIM 이라든가 위성 통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또 눈에 띄는 키워드였습니다.

[00: 04:40] MJ: 네, 말씀을 들어보니 삼성 외에 다른 업체들도 폴더블을 내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폴더블 시장이 얼마나 커질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그리고 애플도 폴더블을 언제쯤 낼까요?

[00: 04:54] SJ: 네 맞습니다. 작년 한 해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약 1300 만 대 정도의 폴더블 폰이 판매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 77%가 삼성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중국 업체들인데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약 2 천만 대 정도의 폴더블폰 출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놀라운 건 중국 업체의 비중이 한 40%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 업체들이 적극적인 상황입니다.

[00: 05:27] Tom: 애플의 폴더블 시장 진출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폴더블 시장이 점차 커지고 프리미엄 시장을 차지하게 될 건데 애플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애플의 경우 대형 화면 폰도 가장 늦게 냈던 것처럼 충분히 시장을 검증하고 진출할 것으로 보는데 아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태블릿이나 랩탑을 먼저 폴더블로 출시를 하고 시장 반응을 보면서 출시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0: 06:07] MJ: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들도 많이 선보여 졌을 텐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있었나요?

[00: 06:15] SJ: 예 제 경우에는 한 가지만 꼽으라면 바로 eSIM 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4 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기술이긴 하지만 단지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무선 이어버드나 라우터 같은 다른 장치에도 좀 eSIM 기술이 많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심 전송을 간소화하기 위한 안드로이드용 eSIM 계획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인상적으로 어떤 신용카드 사이즈에 엑세서리를 소개를 해서 eSIM 기술을 활용한 SOS 요청이나 양방향 메시지 교환이 가능한 그런 기기를 좀 선보이기도 했고요. 또 소프트웨어 퀄컴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젠 2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상용 iSIM 인증을 발표한 것도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0: 07:18] Tom: 저는 위성 통신을 꼽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퍼져 있지 않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아이폰이 위성통신을 들고 나오면서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서 이 위성통신 기술을 활용한 많은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었고 이런 제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치하지만 어떤 보조적인 통신 기술로 위성통신을 활용할 가능성이 점차 많이 도입될 것 같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보조적인 통신 기술로 위성 통신 기술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00: 08:04] MJ: 네 그러면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는 혹시 이번 MWC 에서 눈에 띄는 신기술은 없었나요?

[00: 08:13] **SJ**: 네, 앞서도 조금 언급이 됐지만 중국 업체들의 폴더블폰 출시 러쉬가 가장 눈에 띄었고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지금까지 이제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 중저가 폰으로 좀 좋은 성과를 거뒀던 중국 업체 테크노가 이번에 전시회에서 폴더블폰 출시를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국 업체들의 제조 기술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이 지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다면 샤오미 13 프로 모델의 저조도 촬영 기능이 또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전시회장에서 암실 같은 환경을 조성을 해서 라이트 모드로 직접 촬영을 했을 때 정말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선명한 어떤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나 삼성도 그런 나이트 모드 촬영 성능을 좀 향상시켜서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샤오미의 이 제품이 실제로 잘 출시가 된다면은 그런 저조도 촬영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0:09:27] **Tom**: 맞습니다. 샤오미의 나이트 모드 촬영 케이스가 아주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이 진짜냐 조작이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이 출시되면 아주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샤오미 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저는 봤을 때 프리미엄 시장 진출이라는 어떤 큰 전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삼성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던 이 프리미엄 시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프리미엄 브랜드, 프리미엄화, 프리미엄 제품 이런 컨셉으로 많은 마케팅 행사를 전시장에서 했었는데 저희도 많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서 제품들을 저희가 받기도 하고 굉장히 또 시제품을 많이 뿌렸습니다.

기자들이나 애널리스트들한테 직접 주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중국 업체들이 이 프리미엄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눈에 띌 것 같습니다.

[00:10:35] **MJ**: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전시를 가면 보통 규모도 방대하고 많은 업체들이 참석을 해서 어떻게 행사를 관람해야 할지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두 분은 그런 전시회에 방문했을 때 본인만의 행사를 즐기시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00:10:53] **Tom**: 저도 첫 전시회 갔을 때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번째 정도 되니까 꼭 하는 것이 이제 사전 조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어 전시회에 나오고 어떤 업체 또 대개 업체들이 미리 보도 자료를 뿌립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 어떤 제품들을 이번에 주력을 내미는지 보고 정말 꼭 방문해야겠다 싶은 부스를 선별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반은 이미 선별된 부스를 방문하고 반은 선별된 부스를 가는 중에 눈에 띄는 업체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초대하는 행사는 웬만하면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다면 많이 걸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과 신발도 걷기에 적합한 것들로 준비해 가서 이제 한 2, 3 만보 걸을 각오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00: 11:54] MJ: 네, 임연구원님

[00: 11:56] SJ: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계획을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계획 사전 계획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시회장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반드시 동선을 고려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이 걸으실 준비는 미리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관람 한 달 전이나 아니면 최소 1~2 주 전부터라도 하루 만보 걷기를 좀 실천을 하시면서 좀 워밍업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거를 못해서 이번에 다녀와서 좀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햄스트링에 염증이 생겼다고 그래서 한 몇 주 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다음에 이제 가실 분들은 사전 준비를 통해서 꼭 건강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0: 12:55] MJ: 네, 감사합니다.

[00: 12:57] Tom: 다 나오셨죠?

[00: 12:59] SJ: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회복까지.

[00: 13:07] MJ: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MWC 나 CES 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혹시 또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전시회가 또 있을까요?

[00:13:19] SJ: 네, 지금 세계 3 대 IT 전시회가 있는데요.

지금 MWC, CES 가 있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가 있습니다.

그래서 MWC 가 좀 더 통신업계 산업 위주라면 IFA 는 CES 처럼 좀 더 컨슈머, IoT 기기나 가전 쪽에 이렇게 좀 치중된 전시회고요. 유럽 최대의 이제 가전 박람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CES 보다

전통도 깊고 유럽의 가전 업체들의 참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0: 13:59] Tom: 저는 그 외에 IoT 월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oT 쪽에서는 가장 큰 전시회고 그리고 지역 전시회들도 좋은 전시회가 많이 있습니다.

MWC 상하이 같은 경우는 아시아 쪽에서는 가장 큰 전시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WC 라스베이거스가 미국 통신 사업자들이 많이 참석하고 많은 투자를 하는 그런 전시회가 되어서 주요 정보나 발표들이 거기에서도 이루어집니다.

[00:14:30] MJ: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된 것 같네요.

그래서 두 분을 통해서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정보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 발행한 MWC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0: 15:02] Tom, SJ: 감사합니다.